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방송

128회 남녀탐구생활, 알파걸 베타보이(가제)

진행자: 강지원 변호사

토론자: 최종덕 / 상지대학교 교양과 교수 / 녹색사회연구소 소장

▶시간: 낮 12시 20분~ (80분간)

▶장소: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EBS 교육방송국 1스튜디오

■ 주요 쟁점

Q1. 알파걸, 베타보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전과는 다르게 성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긴 사회인 것 같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알파걸과 베타보이로 불리는 요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 성역할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변화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걸의 유행어 분위기는 여성들 중에서 알파걸이 과거에 비해 늘었다는 것이지, 일반 여성 혹은 일반 여학생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오늘 강조하려 합니다.

Q2.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전에는 없었던 말이죠~ ‘알파걸’ ‘베타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이고, 왜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종덕 : <알파걸, 새로운 여자의 탄생> 이라는 한국어로도 번역된 덴 킨들의 책 제목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왔던 능력있는 골드미스 개념과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토론 주제로 삼은 알파걸 베타보이의 문제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녀지위의 역전상황을 비유해서 쓰는 말일 것이구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 용어 자체가 교실과 학원에 눌러있는 10대들, 특히 남학생들에 의해 인터넷 댓글로 거침없이 그리고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남녀간 역할의 노고적 표현일 것입니다.

Q2-1. 실제로 여러 방면에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뛰어난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종덕 :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학생들간의 차이일 뿐이지, 남녀 학생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개인간 차이에서 오는 불만을 남녀간 차이의 문제로 희석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실은 그 차이도 개인 자신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차이이지만요.

Q2-2.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알파걸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종덕 : 모릅니다.

Q3. 이 신조어만 보면, 양성 평등, 여성의 사회적 위치 등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최종덕 : 남녀간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의 현실과 그 인식도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여성, 일부의 여학생이 대학에 더 많이 들어가고 공무원시험에 더 많이 합격한다는 각종의 통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전반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알파걸의 환상아래 일반 여성들의 문제는 더 깊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Q3-1. 알파걸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여성의 능력은 신장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세계 성평등 지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최종덕: OECD는 통계 국제기구라고 불려질 정도로 해마다 다양하고 각종의 현황에 대한 국제간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사회적 상황은 오이시디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지수만이 아니라 소득불평등, 자살율, 산업재해 사망률, 노인빈곤율, 남녀간 임금격차, 가계부채증가율 등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11위에서 16위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대단한 경제대국이지만 우리 사는 행복은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Q4.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종덕 : 다른 분이 말하겠죠.

Q4-1. 진화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최종덕 : 남녀간의 개인적 관계 혹은 사회적 문제, 즉 사람의 심리상태나 인간관계의 상황들 혹은 마음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서구 학계에서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진화심리학자는 남자의 강간과 같은 포악스런 개인 행위나 일부다처제와 같은 사회

적 시스템 등을 포함한 남녀 간의 갈등 문제를 진화심리학으로 단정해서 옹호하고 그럴듯하게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대체로 인간의 이기적 행동성향이 진화의 소산물로 선택된 결과이므로 어쩔 수 없이 남성권력 중심적인 행위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진화심리학자들은 극소수입니다만.

현대 진화심리학의 성과로 인해 허망하고 추상적인 형이상학으로부터 구체적인 경험철학의 관점으로 인간본성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화심리학은 개인의 심리적 행태나 사회적 행동양식들의 진화생물학의 도움으로 설명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런 이론을 관습이라는 핑계로 남성중심적 행태를 설명하거나 옹호하는 데 도용되거나 합리화시키는 도구이론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론을 대신 말하고 싶은데요, 인간에게는 침팬지 성향의 공격성과 알파맨 지향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 내부에는 폭력적 침팬지와 다른 보노보 성향의 공존과 평화 지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보노보 성향을 알파우먼 지향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 비슷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알파맨 지향의 공격형 침팬지 성향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알파베타 없이 공존과 평등의 방향을 따를 것인지는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파맨 스타일로 간다면 병든 사회로 될 것이고, 평등과 공존을 선택하고 따른다면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역할의 변화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과 역사적 행동에 의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Q6.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된 데 이어, 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50%를 육박한다고 하고, 올해 전국 고등학교의 여교사 비율도 50.4%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으며, 남교사의 비율을 앞질렀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보면 3년 연속 여성 합격률이 남성 합격률을 앞질렀는데요. 여초현상과 더불어 여성이 사회의 주체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종덕 : 그런 사례를 드는 이면에는 대부분 남성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질투성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질투심이 깔린 오늘의 현상이 바로 10대 청소년 일부에서 댓글로 등장하는 치열한 알파결베타보이 증상입니다. 여성비하를 넘어서 여성혐오발언이 비방이나 악성댓글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차마 입으로 담기 어려운 언어들 댓글로 횡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터넷 세상의 현실입니다. 몇몇 분야에서 여초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이죠. 아직도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남성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그러한 여초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분야별 혹은 직종별 주체세력으로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하는 남녀 권한 척도비교 통계가 있습니다. 남녀권한척도란 남녀의 능력개발 정도에 대비하여 실제로 남녀가 어디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인데요, 여기서 한국은 177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나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보다 낮은 57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니다.(표 참조) 최근에는 이 통계를 내지 않고 있는데, 그 대신 이 통계와 거의 유사한 의미통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OECD 내 유리천장지수라는 것입니다. 유리천장지수란 직장 안에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능력 대비 권한과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수입니다.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여초 현상이 맞기는 합니다마나,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는 여성권익의 안정적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만요, 제 요점은 이는 여성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 현상의 한 단편이라는 것이죠.

Q7. 과거와는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성들이 남성성을 버리고, 적응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종덕 : 모릅니다

Q7-1. 이런 현상 또한 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종덕 : 진화가 아니라 같이 살 길을 서로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Q8. 여성들은 아직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남성들은 자신들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종덕 : 외국인 이주자들이 자기(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몰아내야 한다는 인종차별이나 외국인혐오증과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사회적 증상은 결국 모두가 병들어가는 꼴로 됩니다.

Q9. 2011년부터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언급량을 조사한 결과 2015년에는 2014년보다 40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최종덕: 상황발언,, (1)혐오에 대한 문화연구 비교 (2)여가부 조사 아래 표 참조

Q11.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를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종덕 : 그 답은 아이들에게 찾을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행태는 어른들을 따라 모방한 것이 지나지 않은 것이니까요.

Q12. 청소년기의 남학생들은 집과 학교 어디에서도 자신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아우성이라죠~ 집에서 엄마가, 학교생활 내내는 여선생님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더욱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종덕 :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합반 교실에서 체육시간에 옷을 체육복으로 갈아입을 때 여학생은 교실에 남고 남학생이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 다니까요. 그러나 남학생들의 진정 불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랑 혹은 아빠랑 진심으로 대화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에서건 집에서건 이미 커질 대로 커져버린 자기(청소년)의 자존감이 무참히 꺾여 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청소년을 “완성되지 않은 인간, 그리고 과정에 있는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10대의 자존감을 무시하곤 합니다. “임마 니들이 뭘 알아” 이 한 마디로 더 이상의 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근 임상심리 연구결과에 의하면 5세 전후로 이미 어른과 같은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다만 10대는 어른과의 권력관계 때문에 자존감의 피해를 표현할 수 없을 뿐입니다. 어른들은 그런 상황을 마치 “십대들의 자존감 미형성”으로 착각한다는 말이죠.

Q15.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뤄지던 생물학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성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성교육을 비롯해 학교 및 가정,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덕 성교육은 임신이나 섹스와 연관한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 배려심, 공감능력의 연습, 향후 가정을 꾸린 이후에 부모로서의 역할 연습 나아가 성과 관련하여 감정조절 연습들을 포괄해야 합니다.

Q16.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최종덕 : 어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데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실에서 난장판이라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나요. 그놈의 잘못된 법 때문에 교사가 몽둥이를 들 수 없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는 게예요. 때려서 키워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폭력주의 교육관이 우리 교육을 지배한다면 베타보이 피해의식에서 오는 타인 혐오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에 깊이 패어져 있는 불평등 괴리를 해소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알파/베타없는 결과 보이의 공존시대가 이제 겨우 싹이 텄을 뿐입니다. 남성중심적 질투심과 엄살이 이런 어린 싹들마저 싹뚝 잘라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차도르와 부르카로 여성의 몸을 휘감은 전제사회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남녀간, 알파결베타보이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찾아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